

序言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祖上 없는 자손이 있을수 없다」 이 말은 모든事物은 根本이 없이

는 이世上에 存在할수 없다는 말로 다시 말하면 우리人間 亦是 祖上이 없으면 나 도 없고

내가 없는 나의后孫도 있을수 없다는 根本의 至重함을 일깨워준 말이 앞인가生覺되며

그러기에 根源을 알지 못한 사람을 일켜러禽獸에 比하니 果然우리는 祖上을 忘却한

禽獸가 되지나 앓하였는지 다같이 한번 反省하여 불일이다

오우 정종만씨 문헌 공제 이제 휘여유 십이세손 선조 망전  
吾友 鄭鍾萬氏는 文獻 公第 二弟 諱汝裕의 十二世孫으로 그의 先祖가 이고 望田

으로 南下한年代는 確實히 알길이 없으나 그의 舊 戶口帳籍에 依하면 約三百餘年前으로

추측 推測이 되며 그간 河東鄭氏 大同譜나 派譜時續譜 또는 漏譜의 與否도 알길이 없고 다만

九

삼백여년전 발간 문헌공회여창 문집 세세전래 구가승 호구장적 교지 그  
三百餘年前에 發刊한 文獻公諱汝昌의 文集과 世世傳來의 舊家乘 戶口帳籍 教旨 其

외수십종의 문서 증명 수백년십여대 불과오륙호 고독  
外數十種의 文書만이 그의家系를 證明할뿐 그數百年十餘代에 不過五六戶의 孤獨한

가문 국민학교 불우 환경  
家門이요 그모두가 國民學校도 나오지못한 不遇한 環境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리한明文을 보고도 알지못함이 평생 여한 귀중  
그러기에 그는 이리한明文을 보고도 알지못함이 平生의 餘恨이요 또한 이 貴重한

유고 만일 망실 조상 대 득죄 후일자손만대근본  
遺稿가 萬一에 忘失 이라도 된다면 이는祖上에 對한 得罪은 後日子孫萬代根本없는

하동정씨 항시개탄 수백년 선조 체취  
河東鄭氏가 될것을 恒時慨嘆하~~았~~든바 數百年동안 先祖의 體臭와 業이 담겨있는 이家가

보 각종문권 사진 복사 후손만대영원불멸 구가승 전  
寶의 各種文券을 寫眞으로 複寫하야 後孫萬代永遠不滅토록하고 舊家乘만으로 傳하

여오는 가계 체계화 가승보 편찬 대대손손  
여오는 家系를 體系化된 家乘譜로 알기쉽게 編纂하야 代代孫孫다같이 알수있도록 하

수년전 수년전 고자 지사 數年前부터 그는 초빈 地師를 가승 招聘하여 근거 家乘을 인근부로 根據로 고증 隣近父老의 실전 考證을 들어 실전 失傳

되어가는 묘소 墓所를 추심 推尋 묘산도 一一히 작성 墓山圖를 작성 作成하고 또다시 각거사방 各居四方한 종문친척 宗門親戚을 불고 不顧

가사 호호심방 戶戶尋訪하는 등 국문 國文도 수단 알지못한 그가 완료 收單이 실 完了되기까지는 천신만고 實로 千辛萬苦

수년 세월 數年이라는 가승보 歲月이 완성 결여 이제야 겨우 완성 家乘譜가 완성 完成을 보게되었으나 보게되었으나 아직도 아직도 찾지못 찾지못

한 종문친척 宗門親戚과 선대 先代의 묘소 墓所가 수다 數多하다 하니 참으로 참으로 아쉬운 아쉬운 일이다

그럼 여기에 특기 꼭 한가지 특기 特記하고자 함은 함은 수백년전 數百年前의 귀중 貴重한 문권 文券이 어떻게 어떻게 하여

오늘날까지 전 傳하여 왔으며 구문 國文도 생계 모르고 생계 生計조차 넉넉지 넉넉지 못한 그가 어떻게 어떻게 하여 이러 이러

한 대성사 大聖사를 완성 完成하였는지 귀이 奇異하다 기 보다는 보다는 잠으로 잠으로 신기 神奇한 일이요 일이요 아마도 아마도 이 是 그의

조상 귀중 문권 결실 자손  
祖上이 도움이요 이貴重한 文券이 오늘의 結實을 볼수있도록 그와같은 子孫을 태여

보낸것이 아닌가 生覺 가승보 미흡 승조보본  
생각된다 비록 오늘의 家乘譜가 未治한 곳은 적지않으나 崇祖報本

의 빛나는 事業은 사업 후일정씨종문중흥 계기 거주 중문  
後日鄭氏宗門中興의 契機가 될것이요 아직도 居住를 알지 못한 宗門

친척 실전 묘소 속 추심 평생소원 존조수족 대여망  
失傳된 墓所를 하루速히 推尋하야 그의 平生所願인 尊祖收族의 大餘望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초지일관 보본지도 노고 진심 경의 표  
祈願하고 初志一貫 報本之道를 다한 그의 勞苦에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면

서 끝으로 家乘譜印刷에 가승보인쇄 적극협조 순창읍 삼성인쇄소 주인 김 강 坤  
積極協助하여주신 淳昌邑 三省印刷社 主人 金 江 坤氏

에게 깊은 謝意를 들이는바이다 사의

西紀 一九七八年 戊午 八月 日 韓 東 洙 謹序

序

우리河東鄭氏大宗會가 發足되어 於焉八年에 이르러 宗門繁榮의 밝은來日을 爲하  
여 崇祖報本 愛族相助 育英獎學의 宗是로 失傳된 <sup>祖上의</sup> 事蹟發掘、遺蹟의 復元管理等  
門中事業이 振作되고있는 此際에 鍾萬宗賢이 宗門의 族譜에 漏落됨을 慨嘆하고  
家門에서 世傳保藏되어온 先代의 教旨、戶口帳籍및 家乘과 文獻公文集等을 考證하  
여 家乘譜를 作成하게 되었음은 實로 多幸한 일이며 이에 貢獻한 韓東洙氏의  
勞苦에 깊은 謝意를 表하는바이다 이는 有史爾來綺羅星같은 忠烈勲業과 道德  
文章이 世世連綿하였든 屈指의 名門巨族임을 後孫들에게 알리어 先祖의 偉大하  
신 精神文化를 이어받은 一祖之孫이라는 自負와 族誼로 서로 아끼고 뭉쳐서  
世世發展할수 있도록 하기爲하여 한두사람의 誠意와 努力만으로는 이룩할수 없  
는 聖事를 이룩한 굳센 意志를 높이 評價하고 宗門中興의 啓機가 되기를  
祈願한다

河東鄭氏講社新冢拜謁

西紀一九七八年 戊午 八月 日

全羅北道河東鄭氏宗親會 首席副會長 鄭 淳 植 謹序

河東鄭氏第十七世孫新昌縣監諱汝裕派家乘譜序

人家之有譜<sub>는</sub> 猶國朝之有史<sub>와</sub> 江河之有源也<sub>라</sub> 國而無史則國朝  
之興替盛衰<sub>를</sub> 無可考矣<sub>오</sub> 水而無源則源派之分合長短<sub>을</sub> 無可泝  
矣<sub>오</sub> 人而無譜則宗支昭穆<sub>을</sub> 無可據矣<sub>라</sub> 吁我河東之鄭<sub>이</sub> 寓居於  
舊南原梧枝坊望田村(今之任實三溪面望田村)者 不知其幾百  
年幾十代而寄寓之來歷<sub>과</sub> 世代之源派<sub>를</sub> 莫由得詳<sub>하니</sub> 殆將與無史  
之蠻夷<sub>와</sub> 無源之行潦<sub>로</sub> 同一軌矣<sub>라</sub> 慨嘆何極<sub>가</sub> 謹 一 姑依吾先王  
考諱德休公之遺言<sub>과</sub> 鄉隣長老之逸話及家乘所載之世系<sub>와</sub> 與先  
代之文獻記錄若干<sub>하야</sub> 以備當代與後孫之派系昭穆之資<sub>라하노</sub> 謹按  
文獻公遺事<sub>하니</sub> 家狀世系<sub>에</sub> 有曰文獻公鴈行三人<sub>에</sub> 長曰汝昌<sub>이오</sub>

次曰汝裕<sub>요</sub>季曰汝寬<sub>이니</sub>長文獻公汝昌<sub>의</sub>子希高<sub>은</sub>取堂弟希參子

彥男爲后<sub>하코</sub>縣監公汝裕<sub>는</sub>有子希哲<sub>하코</sub>季參奉公汝寬<sub>은</sub>有子希

顏希參而希參<sub>이</sub>繼文獻公後<sub>는데</sub>右遺事<sub>는</sub>寒崗鄭先生述纂輯

其事<sub>하코</sub>咸郡之院儒刊是冊<sub>하코</sub>旅軒張先生顯光<sub>이</sub>跋其文<sub>니라</sub>其後<sub>에</sub>

經數百餘星霜而崇禎百九之癸亥年<sub>間에</sub>陶庵李公緯與院儒<sub>로</sub>重

刊遺事時<sub>엔</sub>縣監公汝裕<sub>는</sub>以無后爲錄<sub>하니</sub>此何其前後相謬之甚

耶<sub>아</sub>嗚呼<sub>라</sub>昔<sub>에</sub>吾先王考每常誨諭於余輩曰吾家<sub>가</sub>本以河東之

鄭諱汝裕之后<sub>로</sub>先代<sub>에</sub>值<sub>니</sub>世途之艱險<sub>과</sub>家勢之困苦<sub>하야</sub>東西漂

泊<sub>하코</sub>南北流浪<sub>가</sub>轉寓此坊<sub>이</sub>十有餘代<sub>에</sub>零丁孤獨<sub>하코</sub>無他襁

筋之族<sub>하코</sub>只有汝輩<sub>이</sub>子若孫幾幾人而已<sub>라</sub>然<sub>이나</sub>所可幸者<sub>는</sub>先代

所傳之遺事若干册<sup>과</sup> 家乘譜一卷<sup>과</sup> 繼又寓居地守令世世所證戶

口帳籍明文等幾件也<sup>니</sup> 此等文卷<sup>을</sup> 謹嚴秘藏<sup>이면</sup> 今雖孤子<sup>이나</sup> 以

待來裔少蕃之日<sup>하야</sup> 俾爲繼譜之資<sup>셋고</sup> 且依世居鄉隣父老之逸話

則望田村<sup>은</sup> 本是李鄭梁三姓氏之壬辰倭丙子胡兩亂時避兵隱寓

之古址也云云<sup>하니</sup> 竊想文獻先祖<sup>는</sup> 國朝賢儒<sup>나</sup> 當燕山朝之士禍作

也<sup>에</sup> 禍延于家<sup>하니</sup> 以公之次第<sup>로</sup> 板蕩家事<sup>하고</sup> 各分東西<sup>하야</sup> 流離展

轉<sup>타가</sup> 避禍於此地而然耶<sup>아</sup> 其或壬辰丙子外寇之亂<sup>에</sup> 避兵隱寓於

此而致此零丁耶<sup>아</sup> 然而後來<sup>에</sup> 禍熄亂平<sup>하고</sup> 時移事去<sup>인데</sup> 何其隱伏

於此而莫知其歸向於先祖之古址耶<sup>아</sup> 抑或中代之吾祖<sup>上이</sup> 禍亂

餘生<sup>으로</sup> 生計汨沒<sup>하고</sup> 勢艱途遠<sup>하야</sup> 忘却桑梓之懷思耶<sup>아</sup> 以我寒微

로 兼之味識 하야 生於數百年之後而追想數百年之上 하니 考證이 未

確 하고 推念이 多端 하야 徒增鬱悒而已 로다 當此家乘譜入梓之際 하야

謹舉先代世傳文卷與鄉父老逸話及先王考在世時遺言若干 하야 以

備續譜之資 하고 至於先世系昭穆之的確誤謬顛末 는 하야 不敢斷案 하니

以待同貫吾鄭具眼僉宗氏之考評 이오 謹叙次如右云爾 로다

檀紀四千三百十一年戊午 八月 日

縣監公諱汝裕十二世孫 鍾萬謹序

序 言

程夫子의 말씀에 사람의 來處、알지 못함을 걱정하여 譜系를 밝힌다 하셨으니  
竊念컨데 이는 至重하고 懇切하신 말씀이며 萬古不易의 常道이다

今日 吾鄭으로써 말씀하면 高麗朝에 平章公(諱道正)이 河東君諱遜佐肇祖가 되며 累代를

傳하여 文獻公(諱汝昌)의 門戶가 大昌하여 그 後承이 嶺南의 望族이 되었다

오직 文獻公의 第二弟 縣監公(諱汝裕)의 一派가 果然 程夫子의 말씀과 같이

四方으로 流轉하여 親함이 끊어지지 아니 하였는데 서로 알지 못한즉 이는

累代를 漏譜한 所致이니 慨嘆함을 어찌 다할까

옛날 中華에 變節은 晋나라의 世家로되 그 苗裔가 或 阜隸로 되었으며

崔廬는 唐나라 大族인데 그子孫이 衣冠을 오래 이이지 못하였으니 竊念컨데

大凡 天地의 理致가 盛하면 衰하고 衰하면 다시 盛한것은 元亨利貞의 常道이다

惟我先祖 縣監公의 後孫으로써도 客土에 流離하여 門戶가 寒微한 즉 族親이

서로 알지못하고 世人이 서로 듣지를 못함은 그勢가 必然的이라 아니할수 없도다

그러나 이제날 家乘譜를 編修함은 祖上의 蔭德이 冥冥한 가운데 默佑한것

같으나 그러나 羅隱의 詩名이 있는 然後에 羅威의 그 叔姪된줄을 알았고

山谷의 文章이 있는 然後에 黃渥의 그 兄弟된줄을 알았으니 이제 吾從兄 鍾萬

氏의 祖先을 追慕함이 篤實하고 族親에 和睦함이 重厚하며 그 勞躬、血誠함이

있지 아니하면 어찌 그 尋源 溯本이 이와 같이 昭哲하리오 今日의 家乘譜는

진실로 根本을 알게하고 來處의 至意를 알게한즉 果然 程夫子의 말씀은 自  
尊한 것이다

끝으로 吾家の 興替와 家乘一件과 數百年 守令 所證의 戶口帳籍과 文獻公實記에  
縣監公世系 前後相異의 點과 이古庄에 寓居來歷과 教旨、 및 遺文若干과 諸般  
事實은 吾從兄 序文에 詳悉되었으니 架床添累에 不過함으로 但 修譜의 意義에  
對하여 몇말씀 記錄하였으니 僭越한 感이 不無하오나 이點을 僉族께서는 寬  
恕하시옵기 바랍니다

檀紀 四千三百十一年 戊午 八月 日

縣監公 十二世孫 南基 삼가씀

東方鄭氏世系舊蹟序

天地陰陽肇判後人生於寅至黃帝軒轅氏有子二十四人人種始繁於世界時有東方鄭氏出於慶州花山珍支自爲府長後爲樂浪候蓋自東方檀君至箕子禮樂文物稱小中華矣噫衛滿亂禮變俗君闇臣諛貪虐無度亦是起兵數侵中國時則漢文帝後元二年也丞相申屠嘉爲所助文帝忍而不伐賜金矣其後不爲改過而益甚於前元封三年武帝大怒仍擊朝鮮大破之置樂浪臨屯玄菟眞蕃四郡自此以後卿大夫後裔分居東海濱山谷間自爲府長漢宣帝地節元年春珍支府長智伯虎悶无君長與五府長會于楊山蘿井三日齊浴禱于天傍林間忽有白馬跪拜之象往視之馬忽不見而有太卵因剖之嬰兒出焉浴於東川身光生彩鳥獸率舞奇其象貌遂收養之至十三歲岐嶷

夙成智伯虎與五府長共立爲君國號徐羅伐卽辰韓赫居世元年甲子漢宣帝五鳳元年夏四月丙辰也赫居世出於卯卯如瓠故以朴爲姓儒理王八年壬辰春賜姓六府長樂浪候智伯虎爲鄭氏闕川楊山府長謁平爲李氏茂山大樹府長俱禮馬爲孫氏突山高墟府長蘇伐都利爲崔氏金山如利府長祇他爲裴氏明活山高耶俯長虎珍爲薛氏其名未詳故以號爲定六府長因爲佐命功臣宦爵勲業累世靡替維我河東鄭氏分子嘉靖大夫藝文館春秋館學士封河東君諱遜位其子孫因爲姓貫子世裕官平章事生諱淑瞻襲封河東君生晏官平章事謫居南海而不返子孫蕃衍傳守世風東方巨族豈非神明之後哉

恭讓王三年翰院左叅贊都承旨朴昭載撰誌

河東鄭氏族譜一秩藏于奉化縣太白山史庫中一鄭之時開  
圻只依何族非我非功

河東鄭氏舊昭穆編序

(一)

霜派別

一世 遜位沃川派

十世 膺各景公派

五世 霖鐵山派

廿世 忠信瑞山派

五世 道正大同譜

書曰克明峻德者以親九族親親九族明德之本尊祖敦宗人倫之常也嗚呼木雖千枝其根則一也水雖萬派其源則一也人雖分派祖宗則同也何後屬疏遠文獻益為未足統紀渙散年久歲深无昭穆可懲則安知某祖之孫乎一根之誼掃無餘則此非路上之人乎是以士大家有昭穆篇慕先思後之意也何也吾家上世系迄未修成集錄前所未未遑者也然則沃川派以河東君諱遜位為始祖文景公派高麗政承公諱膺為始鐵山派翰林公諱霖為始瑞山派以錦南君諱忠信為始稱大同譜云二十五世諱道正為始以東方巨族未免他人之曰笑矣故不肖雖劣納履往各道各邑閱覽諸宗之乘牒新羅高句麗高麗本朝史記則乃自慶州鷹揚將軍諱遜卿遜位兄弟分派矣天川軍田

里宗派世系明若觀火也豈爲無懲而密直公生蘭衍芝衍也豈爲倒  
錯維我十七世祖都僉議諱履生錦城君諱盛但庚申譜父子顛倒父  
子誤錄爲後孫者豈不愧歎寒心哉此不可付諸傳疑之我而正昭穆  
一篇後世子孫幸悉此意各祖其祖支分派別無至忘先糶糊之地大  
望耳

(西紀一九二六年)

歲在丙辰九月上澣河東君二十八代孫通訓大夫按廉使在柏謹

叙

序

(二)

夫譜者昭穆瞭然宗支不紊然後可謂譜矣噫吾鄭之譜粵自庚申河  
東合譜後父子之諱啣倒錯兄弟之序次換錄是何委折此有譜不如

無譜也謹按導訓大夫諱韶派卽吾鄭之大宗家也閱其傳來舊帖則初無父子兄弟誤錄而與錦城舊譜昭詳載錄炳若日星然則訛錄之端全生於庚申之後矣何幸族叔在柏氏爲是懼博採國乘野史諸宗譜牒昭釋誤錄之疑体諸欵劄粧成昭穆編一局然後父子正位兄弟成行然則吾祖在天之靈必有肯曰余有後矣維我中祖錦城君諱盛自河東奠居于羅州居坪百竹谷里麗季生諱地 太宗朝贈諡景烈禮葬于光州郡上大谷面奔兔洞後麓亥坐之原 賜牌周回三十里有局內山坂田土而後屬疏遠恐未得全守粵在辛卯以先考之命盡心竭誠雖一片土一一推入矣亦自丁未年後先山土地幾至遺失不勝念寃庚戌年則先山局內土地獨當測量制圖而自辛亥以後累度天水或勝帖或落課土地則買收而雖一片土更爲全護矣至于丙辰

秋這間所入金計算報給爲計合數爲一千四百餘圓而日後恐有後弊而歲在甲寅十月門會席至於七人證書先山坪數及土地字號卜數無遺漏而錄示於辨決書中矣限其州禩委之專權雖賜牌之地實是獨自買收徒爲先祖而然也無乃吾先陰隲之靈默佑於冥々之中而然歟況且吾弟叅奉海鎰當此丙辰景烈公不祧廟更建于羅州郡金鞍面仁川里創設俎豆爲先之誠可謂至矣不肖年近七旬貽後之謨未可知也先山及土地託于長侄淳庠與汝從弟淳鳳爛確相議善爲拮据其後一從土地所出以助先山時祀不祧廟春秋享祀之羞豈非承先裕後之道耶此雖似細瑣之說事在先隴不可含默略書如右云爾

歲在丙辰九月下澣景烈公十六世孫進士龜鉉謹識

河東鄭氏舊昭穆跋

(一)

人生於世不識其本可乎曰忘本則無族無族則非類也惟我東邦之鄭以河東稱貫而蕃衍各省者文獻或可懲不可懲全昧於昭穆之序不知某人爲某祖之裔而與路人無別一源同派之義安在哉各省有志子孫慨然於此而未遑者久矣宗人在柏氏自少至老博探國乘與各家譜帙以爲一卷冊子自河東伯遜位以後至今千餘歲列邑散處雲仍群昭群穆燦然可徵前日之路人始覺今日之一家也花樹一會呼兄呼叔有欣然有春風氣像矣一見此譜則倫存不泯雖至百世宗義自在可謂人乎哉

崇禎紀元後五回丙辰九月下澣後孫潏默謹跋

河東鄭氏昭穆編跋

(二)

夫家之有譜猶國之有史也家無譜昭穆紊矣國無史春秋蔑矣然則譜與史雖殊其義一也惟我河東之鄭自羅歷麗洎我朝忠臣節義名賢碩德間世輩出或黼黻王庭或功存宗祊或柯則士林而其它嘉行徽蹟前人之譜序已備不復贅說抑有一說焉導訓大夫歙谷公諱韶派卽吾河東鄭之大宗家也按其舊譜初無父子兄弟之誤錄何庚申以后襲其訛謬父子倒位兄弟幼序此曷故焉抑未知其時有司昧於先系誤錄而然歟族祖在柏氏用是慨然鉞成一局編曰昭穆明其世系牖其後昆其有切於吾門可謂誠且盡矣不肖識淺人微豈敢泚毫恒有志於此不可含默忘搆燕語如此云爾

歲在丙辰九月下澣后孫鳳采謹跋

文獻公實

紀家狀世

紀源流記

膽本

本貫慶尚

南道河東

縣舊有譜

牒中失之

後世代源派莫由得

詳亦不知

自某他轉

徙于咸陽

今姑據所知

謹錄五世

祖以下崇禎八年乙亥九月日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鄭宥

정유

子

堅

견

子

之義

지의

子

復周

부주

子

六乙

육을

子

汝昌

여창

奉翊大夫密直副使上護軍

判宗簿寺事

判典農寺事

配載寧郡夫人李氏

配江陽郡夫人李氏

氏

折衝將軍行咸吉道兵馬虞候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

子

汝裕

여유

公出於江陽郡夫人判事府君年六十而生登故名以記實武科

子

汝寬

여관

文獻公家狀世已源流記

三三三